



## 봄이 온 이유

아마리 미호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이주** 2011년 일본에서 한국으로 이주하였다. 음악을 하고 있고 한국인 남편과 함께 유기견이었던 로이의 엄마로 살아가고 있다. 내 인생에 결혼과 이주가 동시에 일어났다. 결혼이라는 인생의 큰 변화와 이주를 통해 전혀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문제가 한꺼번에 다가온 것이다.

일본에서 음악을 하고 있었다. 음악적 취향이 매우 잘 맞았던 사람을 드디어 만나게 되었는데 지금의 남편이었다. 그렇게 찾던 음악적 파트너가 일본인이 아닌 한국인이어서 신기했다. 한국어는 물론 한국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한 채 이주를 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모든 것이 두려웠다. 사람들과 만나는 일도 피하고 한

동안은 아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음악을 하지 않겠다고 남편에게 선언했다.

**다시 시작된 음악**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변화가 조금씩 시작되었다. 어학원에 다니면서 다른 이주민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음악활동도 다시 시작할 수 있었다. 유기전이던 로이를 입양하면서부터 음악으로 만나는 사람들 외에 일상에서도 많은 이웃들을 만나게 되었다. 로이와 매일 동네 산책을 하면서 지금 살고 있는 동네 길거리와 공원이 나의 생활권이 되었다. 동네 사람들이나 다른 반려견 가족들이 먼저 로이를 알아보고 말을 걸기 시작했다. 남편, 로이, 음악이 다 함께 있을 때 나의 삶이 봄 같이 꽃을 피우고 많은 잎이 돋아나는 것 같았다. <봄이 온 이유>라는 제목을 통해 이런 한국 생활을 표현하고 싶었다.

이주 후 한국에서의 삶이 두려워서 음악 활동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었지만, 점차 사람들을 만나면서 다시 음악을 시작하기까지 3-4년이 걸렸다. 지금은 파드마라는 밴드에서 보컬과 기타를 맡고 있다. 일본에서 음악을 할 때는 늘 어두운 라이브클럽에서 음악 매니아들을 대상으로 연주했었다. 그러다가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공연을 하게 된 곳이 고양시의 아람누리 광장이었는데 야외에서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주는 처음이었다. 음악에 맞춰 춤추는 할머니와 어린 아이들을 보고 감동을 받았다. 음악 매니아가 아닌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야외에서 어울리는 공연을 하는 것이 좋았다.



**음악으로 세계 여행을** 아시아미디어컬처 팩토리(Asia Media Culture Factory, 이하 AMC)에서 이주민 뮤직 밴드를 제안하면서 AMC와의 인연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다. 다른 이주 뮤지션들, 무용과 연극 등 다양한 분야의 예술가들, 이주민, 한국의 이주민 단체들과 만나고 같이 작업하게 된 것이다. 이주민예술제를 기획하면서 퍼포먼스 기획을 하고, 연극의 음악감독을 맡기도 하고, 영화 음악을 만들기도 하였다. 음악 장르에 있어서도 이전에는 락 음악 중심이었는데 다른 이주 예술가들과 교류하면서 각국의 전통악기에 대해 알게 됐고 스스로도 일본의 전통 악기에 대해 궁금해졌다. 일본인 친구를 통해 샤미센이라는 일본 전통 악기를 알게 되어 연습하기 시작했고 전통악기를 통해 월드뮤직도 시도하게 되었다. 밴드를 시작할 때 목표 중의 하나가 “음악으로 세계를 여행하자, 세계인을 만나자”였는데, 한국에서 실제로 이 목표를 실현하고 있는 것 같다.

**진흙 속에서도 피어나는 연꽃처럼** 한국의 이주민 관련 단체를 방문하여 공연을 하고 이주민 집회에도 참여한다. 지금 하고 있는 활동들은 그저 “우리가 하고 싶은걸 하자”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다. 내가 이주민이 되기 전까지 이주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다른 문화에 대한 흥미와 호기심은 있었지만 내 스스로가 이주민이 되고 나니 이주민의 현실이 보이게 되었다. 과거의 나처럼 이주 문제에 관심 없을 ‘비이주민’인 많은 사람들에게 이주민의 현실에 관심 갖게 하고 싶다.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현실이기에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주민의 삶이 어떻게 상상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고 싶다. 예술가는 어떤 것을 경험하고 뭔가 느끼게 되면 멈출 수 없다. 무언가 할 수 있는 틀이 있다면 그저 하는 것이다. 일본에 있을 때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

는 음악을 해본 적이 없다. 그러나 스스로가 이주민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이주민의 현실 문제가 중요해졌고 무언가 전달하고 싶어졌다. 관련 주제에 대해 계속 다루고 싶다. 예술을 통해 사회적 메시지를 계속 표현하고 싶다.

밴드 이름인 파드마는 산스크리트어로 연꽃이라는 의미다. 진흙 속에서도 역경을 딛고 피어나는 연꽃처럼 우리 음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다. 우리가 재미있게 음악하는 모습을 누군가가 보고 조금이라도 생각이 긍정적으로 바뀐다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이전에는 이주민으로서의 정체성에 대해 좋아할 수 없었다. 한국 남자와 결혼했다는 것 때문에 한국에서 나를 ‘결혼이주민’이라는 단 하나의 정체성으로 쉽게 정의하는 것에 대한 불편함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다른 결혼이주민 친구들이 음악활동을 하는 나를 보고 “나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용기를 얻는다는 걸 알게 되었다. 이후에는 내가 먼저 이주민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그들에게 밝히기도 한다.

최근 인천에 거주하는 다른 뮤지션과 일본-한국 교류 프로젝트를 위해 음악 작업을 하고 있다. 로이의 산책을 하면서 동네 산책자가 되었다. 로이를 알아보고 나에게 먼저 말을 걸어주는 사람도 생겼다. 나의 이주에 대해 봄이라는 테마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사진에 표현된 것처럼, 음악, 로이, 남편으로 인해 나답게 살 수 있게 되었고 이런 순간이 인생의 봄이라는 생각에서였다.